

합격기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성실과 최선 그리고 나의 합격을 기뻐할 주변사람들을 생각하라



이 병 래

- 1987년 1월 생
- 전주 동암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대 재학중
- 제52회(2010년) 사법시험 합격

I. 들어가며

수험기간 중 다른 고시생들과 마찬가지로 합격생들의 합격수기를 많이 읽어 보았다. 이제 합격생의 입장에서 나의 수기를 쓰려고 하니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가지신 분들도 더러 계셔 합격기를 쓰기가 부끄럽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나의 수험 경험에 비추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공부가 자신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거나, 잠깐의 휴식시간일 것이므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사실 합격기를 통해 공부방법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나의 경험상으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험생활을 겪은 한사람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 나의 공부방법이 수험생활의 방향 설정에 있어 참고사항 정도라도 쓰였으면 한다.

II. 제1차 시험 준비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는 사법시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입학 후에야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후에야 사법시험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교 1, 2학년 동안에는 학교수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1학년 겨울 방학과 2학년 여름방학 동안 신림동에서 민법, 형법 기본강의를 들었지만,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 듣지 않은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2학년을 마친 뒤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여 시험장에 한번 가보고 싶어 처음으로 1차 시험에

응시하였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지만...

3학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해보자는 생각에 수험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학교를 휴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했고, 민법(이태섭강사)과 형법(신호진강사) 기본강의만 간신히 들을 수 있었다. 여름방학동안에는 처음으로 헌법기본강의(김유향변호사)를 통해 헌법 공부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준비가 허술하다 보니 9월부터 시작된 진도별 모의고사 성적은 생각과 같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1월정도 쯤에는 자포자기 상태로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아 그 해 시험에서 낙방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험 준비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 첫째는 시험 전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공부할 양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은 항상 나를 응원하고 계시며, 내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합격 뿐이라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그 후 다시 1차 시험 준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당시에도 역시 학교에 재학 중에 있었지만, 최소한의 학점만 신청하고 시험 준비에 전념하였다. 3월에서 6월까지는 신호진 강사의 기본서를 구입하여 형법 총론을 1회독 하는데 집중하였고, 학기가 끝난 후 신림동으로 이사를 오고 8월까지 그동안 약점으로 생각했던 헌법판례를 공부하기 위해 정희철 강사의 판례집을 구입하여 각 판례의 주요쟁점과 침해된 기본권 등을 판례 제목 옆에 요약하여 진도 때 쉽게 볼 수 있게

정리하였다. 8월부터 진도 시작 전까지는 민법기본서를 민법강의(지원림저)에서 핵심정리민법(박기현저)으로 바꾸고 중요한 필기사항을 옮김과 동시에 핵심지문총정리(권순한저)를 구입하여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와 중요한 문제를 표시하여 진도 때 쉽게 볼 수 있게 정리하였다

진도는 철저하게 예습위주로 진행하였다. 예습위주로 진도를 진행해야 문제를 많이 틀리지 않아 복습은 틀린 문제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었다. 진도 당시 민법과 헌법은 그 동안 정리해 놓은 기본서와 판례집, OX집을 보았고, 형법의 경우 따로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연습장 한 권 정도 분량으로 요약하여 두었다. 선택법은 국제법을 선택했는데 선택과목만은 진도 뿐만 아니라 집중강의(이승훈강사)도 함께 수강했으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진도 성공여부의 관건은 성실함이다. 진도의 필요성에 대해 찬반의견이 존재하지만 규칙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공부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진도의 효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진도별 모의고사는 시험을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진도의 예습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진도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진도 이후 7-4-3-2-1의 전략을 세워 기본 3법을 돌려 봤고, 해당 과목을 공부하는 시기에는 아침마다 그 과목의 모의고사 문제를 25문제씩 가량 풀었고, 매일 아침마다 분량을 나누어 국제법을 공부하여 선택과목을 위해 따로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었다.

약 반나절 정도 진도가 밀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계획대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생각한대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니 웬지 모를 자신감이 생겨 큰 부담 없이 시험을 칠 수 있었다.

III. 합격의 기쁨과 예비순환

1차 시험을 치르고 그날 밤 채점을 한 결과 다행히도 안정권 내의 점수에 해당하였다. 물론 합격자 명단을 통해서도 나의 이름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합격자 발표 후 걸려온 친구들과 친척, 그리고 특히 아버지가 담담한척 말씀하신 “수고했다 돈 부쳐줄게 친구들이랑 소주한잔 해라”라는 말씀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3월부터 예비순환을 시작하였는데, 나의 경우 안이하게도 편안하게 쉬면서 공부하자는 생각을 하였다. 처음부터 후사범만 듣는 것을 계획으로 세웠으나, 1차 발표가 나기 전에는 혹시 마킹을 잘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에, 1차 발표 당시에는 기쁨과 희열에, 발표 후에는 1순환부터 공부하면 된다는 자만심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여러 편의 합격기를 읽어 보았는데 어느 누구도 예비순환부터 열심히 공부했다고는 하지 않았고, 이래저래 흔들렸던 상황만을 서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예비순환은 1순환 만큼이나 중요한 기간이며, 예비순환을 2차 시험 준비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줄 것을 감히 충고해 주고 싶다.

IV. 본격적인제2차시험 준비

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따로 개인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학교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가는데 집중했다.

1순환은 기본서를 단권화하고 정독하는데 집중하였기 때문에 사례집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기본 개념과 판례를 요약하여 외우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였다. 이 당시부터는 아침8시부터 새벽 1시 정도 까지 공부를 하였는데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올 때면 학교 앞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구체적으로 보면 형사소송법은 신형사소송법(이재상교수저)과 이치민강사의 강의를 들었고, 민사소송법은 이창한강사의 책으로 강의를 들었고, 행정법은 행정법특강(홍정선교수저)으로 김기홍강사의 강의를 들었으며, 상법은 상법신강(김혁봉강사저)과 김혁봉강사의 강의를, 헌법은 정희철강사의 책으로 차강진강사의 강의를, 형법은 송헌철강사의 책으로, 민법은 민법교안으로 윤동환강사의 강의를 들었다.

이 당시에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모의고사 범위 내의 진도는 밀리지 않도록 꾸준히 복습하였고, 모의고사도 빠지지 않고 모두 응시하였다. 하지만 시험을 보지 않고 빠르게 나가는 마지막 진도는 복습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2순환은 학교에서는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책을 읽고 이해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다. 아

침에는 민법 스터디를 시작하여 하루에 2, 3 문제 씩 목차 잡는 스터디를 하였다. 스터디 후에는 혼자 형법 사례 2문제 정도를 풀고, 나머지 시간에는 기본서를 정독하며 쟁점되는 사항은 주황색 색연필로 판례는 형광펜으로 학설은 빨강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따라서 하루 종일 혼자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걸 느꼈고 기본서를 읽고 나면 보통 10시 11시 정도 되어 사례집은 중요 사례만 훑어보는 정도에 그쳤다. 이 당시에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 공부를 가장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과 동시에 지루함도 많이 느낀 시기였다. 이 때 공부가 너무 손에 안 잡힐 때는 약 15분정도 주변을 산책하고 돌아오면 지루함이 덜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2순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있는 모의고사를 충분히 대비하고 모의고사에 빠지지 않고 응시하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진도가 밀리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진도를 맞추고 나면 주말에는 반드시 밤에 영화를 보거나 맥주한잔을 하고 잠들어 일요일이면 항상 늦잠을 잤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가급적이면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자 노력하였다. 개인적으로는 하루 정도의 늦잠은 피로회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3순환부터는 도서관 바로 앞에 있는 하숙집으로 이사와 최대한 공부 외의 허비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였다. 학교 프로그램 상으로는 일주일에 4번 정도의 시험이 있는데, 그 진도를 따라 잡기가

굉장히 벅찼다. 기본서와 사례집을 같이 보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므로 주로 기본서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엄밀히 말하면 헌법사례집 외에는 사례집은 거의 보지 않았다. 이때부터는 스터디도 하지 않았고, 혼자서 오전 7시부터 아침 먹기 전까지는 민법 사례2개를 아침식사 후 약 한 시간 정도는 형법 사례 2문제의 목차를 잡아보았다. 또한 일요일에도 오전 10시 정도까지는 도서관에 도착하여 공부를 시작하였다. 이 당시 모의고사는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으며, 점수에 신경이 쓰이기도 하였지만, 교수 출제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이 부분에서 말해 주고 싶은 점은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하지만 연연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알고있다.) 대개의 경우 채점은 합격생들이나, 채점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채점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아니라 교수님들이시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이점을 생각한다면, 점수에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순환 이후부터는 최대한 진도를 따라잡기에 집중하였다. 기존에 정리해 놓았던 기본서를 위주로 보았으며, 이때에도 아침에는 민법과 형법의 사례 목차 잡는 연습을 계속하였다.

시험 전날에는 해당과목을 기본서를 위주로 한번 씩 보았으며 보통 새벽 3시 정도 까지 공부를 하고 6시 반 정도에 일어났다. 기본서를 읽을 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놓아 시험 당일 날에는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둔 부분만 빠르게 보고 시험을 보았다. 시험장에서는 첫날 첫 과목 시험 볼 때만 약간의 불안감,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별로 떨지 않고 답답하게 시험을 칠 수 있었던 것 같다. 시험기간에는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욕심과 합격할 것이라는 의지로 공부하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오직 시험에만 집중하였다.

V. 합격의 기쁨

시험이 끝난 후 고향인 전주로 돌아와 여름 휴가를 보냈다.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도 여행을 가고 그동안 배우지 못한 운동과 기타도 배우면서, 내 대학생활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가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발표 일주일 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고 술 마시는 것도 자제하였고, 발표가 앞당겨졌음에도 아무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발표일이 앞당겨진 사실은 주변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았을 뿐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렇게 발표일이 찾아오고 전날 밤을 꼬박 세우고 아침에도 잠을 못 이루고 TV채널만 돌리고 식사도 하지 못했다. 그 당시 고모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친척 형은 내가 어두운 표정으로 TV만 보고 있으니 떨어진 줄 알고 말도 못 걸었다고 한다. 예정된 발표 시간 10분 전부터 인터넷을 훑어

라 쳐다보고 있었고, 화면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였다. 내 이름을 확인 후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어머니는 울먹이며, 아버지는 담담하지만 떨리는 말투로 잘했다며 기뻐해 주셨다. 그 후 여러 통의 친척들과 친구들의 전화와 문자를 받고 기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 순간 합격의 기쁨보다 더욱 큰 것은 나의 합격을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었다는 기쁨이었다.

VI. 글을 마치며

지금 이 순간도 시험만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쩌면 공부를 하고 있는 자신보다도 합격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주변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항상 생각해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세운 계획을 충실히 수행 하고, 항상 자기가 위치한 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저것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핑계를 만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법이다. 항상 자신이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만 짊어지게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10월에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합격의 기쁨을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대단하지도 않은 이 글을 읽어준 분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파이팅!!하시길 빌고 진심으로 합격을 기원합니다.